

시그니처 있는 아침



오빠가 되고 싶다

-임보(1940~)

나팔바지에 찢어진 학생모 눌러 쓰고 휘파람 불며 하릴없이 골목을 오르내리던 고등학교 2학년쯤의 오빠가 다시 되고 싶다

네거리 빵집에서 곰보빵을 앞에 놓고 끝도 없는 너의 수다를 들으며 들으며 푸른 눈썹 밑 반짝이는 눈동자에 빠지고 싶다

(...)

토요일 오후 짐자전거의 뒤에 너를 태우고 들판을 거슬러 강둑길을 달리고 싶다, 달린다

용단보다 포근한 클로버 위에 함께 넘어지고 싶다

(...)

“오빠”는 사랑받는 젊은 남성에게 붙여진 시들지 않는 기표(記標)다. 세월이 가도 오빠는 그대로 있어서, 나이를 먹는 남성들은 언제나 그리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팔손을 얼마 앞에 둔 시인도 “오빠가 되고 싶다”. “푸른 눈썹”의 소녀를 뒤에 태우고 달린다 “포근한 클로버 위에 함께” 넘어지는 꿈은 얼마나 풋풋한가. 세상의 모든 청춘들이 이 시절을 지냈고, 또 지내고 있다.

(오민석 시인-단국대 영문학과 교수)

여소야대 돌파는 대화·소통의 열린 리더십으로



사공일의 글로벌 인사이트 Global Insights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절차이지만 그 과정은 극히 혼란스럽고 무절제하며, 비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실제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은 더욱 그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에서 우리는 정부·여당에 대한 준엄한 경고와 함께 야당에 대한 절제된 격려와 기대가 섞인 분명한 민의를 읽을 수 있었다.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 체제는 아니지만 인류가 경험해 본 어느 것보다 ‘덜 형편없는’ 체제라고 한 윈스턴 처칠의 명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또 하나의 계기였다.

어쨌든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선거 결과에 비친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초심의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먼저 정부와 여당은 여소야대 정국 돌파를 위해 소통과 대화를 중시하는 열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다수의 야당을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대하는 정치 풍토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 고위층과 야당 지도층 간의 공식·비공식 대화 채널을 넓히는 것은 필수적이다. 물론 이에 앞서 정부와 야당 간 소통 강화를 통해 국정우선순위와 정책 집행에 관한 시각을 같이하기 위한 대통령과 여당 수뇌부, 그리고 당정 간의 공식·비공식 소통과 대화 채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부의 대국민 소통과 설득 노력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여소야대 정국하에선 필수 불가결하다. 국민 여론의 힘이 뒷받침될 때 다수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 장관의 수시 기자회견, 분야별 논설위원과 취재 데스크 책임자에 이르는 주요 언론인과의 각종 간담회 개최와 함께 정책 담당부처 장차관뿐 아니라 실무책임자까지 적극적인 ‘정부정책 대변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의 소통 과정에 정부가 출연 혹은 지원하고 있는 주요 국책연구원의 적극적 참여도 필요하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분야별 정책과 개혁의 내용



일러스트=김희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정부는 국민여론 업어야 야당 협력 이끌어낸다
야당도 책임 있는 국정 파트너로서 행동할 때

과 필요성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논리와 외국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대국민 설득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렵고 복잡한 개혁 분야일수록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국정 파트너로서의 모습을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것을 공약했다. 이제부터는 경제민주화란 추상적 수사(修辭) 차원에서 벗어나 분야별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금융, 노동, 교육 4대 개혁 과제에 대한 입장과 필요한 부문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지원을 세종시에 설치(필자의 1월 25일자 본 칼럼 참조)하겠다고 한 공약을 지키는 것은 행정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행정부와 신뢰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의당은 국정운영에 합리적 균형추 역할을 해달라는 뜻이 담긴 국민의 지지와 격려의 뜻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철수 대표가 선거 후 말한 대로 국민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국민의당이 앞장서주길”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지도자 중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제4차 산업혁명의 내용과 그 정책적 함축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경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내다보는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교육, 노동, 행정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필요한 폭넓은 개혁에 앞장서지 못할까 우려된다.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발표된 후 피치와 무디스 등 신용등급회사와 일부 국제 투자

은행은 여소야대 정국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여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지금 세계 경제는 과거 어느 때에도 경험하지 못한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과 함께 현재의 경기 침체가 아예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게다가 최근까지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온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른 충격에 더해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과 양적완화의 지속으로 국제 외환 및 금융 시장의 불안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한 기업 간, 지역 간, 국가 간 경쟁은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어렵고 불확실한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국내의 기업과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여당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과 국정운영에 능동적으로 협조하는 야당의 모습이다.

본사 고문·전 재무부장관

5천만 국민 모두를 녹색힐링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대한민국 Korea Landscape * Garden Expo 2016
조경 * 정원 박람회

[특별 초청 세미나]

요일	세미나명	일시	주관	장소
22일(금)	신소재·신기술 세미나	13:00~18:00	(사)한국조경사회	컨퍼런스룸 402호

[세미나 일정]

요일	세미나명	일시	주관	장소
22일(금)	품질 개선 및 하자비용 절감을 위한 굴취장비 효율화 방안 제시	15:00~16:00	지아이조경건설	전시장 내 세미나룸
23일(토)	우리집 정원 self디자인	13:00~14:30	아이디얼가든	
	산소와 음이온의 중요성	11:00~12:00	산수경	
24일(일)	화예 & 원예 실용적 디자인	14:00~15:00	(사)한국원예디자인협회	
	그라스 가든의 이용	15:00~16:00	돌인의 행복	
	그라스 생육환경 및 조경재료로의 이용가치	16:00~17:00	세계사이버대학 환경조경원예학과	

* 세미나 일정은 전시장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4. 21(목) ▶ 24(일)
COEX A홀

문의 02-515-4800

리드엑스포

2016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
무료초청장(1매 2인)
*이 초청장을 소지한 방문객은 현장 등록비 및 주차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중앙일보